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단축 논란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재 건설사들의 97%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무리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 최운열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엔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현행 15일)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관련 대금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엔 위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현행 60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건설사 97% 중기... 행정인력 부족해 촉박

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15일은 공휴일도 포함된 것으로, 중소기업은 기한 단축엔 추가인력 등 행정부담과 비용이 늘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기간은 통상적으로 12~15일 걸린다고 말한다. 특히 다수의 하도급공정이 진행되는 대형공사 또는 준공시점에 계약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현행 15일도 짧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이 온라인화된 것은 송금 절차 등을 마련한 것일 뿐이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현장확인 등 핵심 행정절차를 대

신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상 건설 원도급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별 기성 청구→현장서 물량·시공품질 검토→본사 관리부서 및 회계부서 상신 및 내부 결재→대금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건설하도급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복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절차를 밟기에는 7일이라는 시간은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해외 선진국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과 비교하면 현행 우리나라 기준이 길지 않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우리보다 유사하거나 길게 규정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원·하도급 계약 지불 규정인 PPA(Pay Prompt Act)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49개 주의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의 대금수령 후 평균 16일로 우리와 유사하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보다 긴 편"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일본은 모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30일 이내)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와 더불어 원사업자 또한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이후 15~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우리나라 하도급법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용 기자

강태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최용구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취임



강태호 본부장 최용구 본부장

전북농협은 지난 9일 실시된 농협중앙회 임원 및 본부장 인사에서 강태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과 최용구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도내 출신 임원급으로는 김재 출신인 국병근 산지유통부장이 농협경제제주 상무에, 전주 출신인 한정열 IT전환추진부장이 농협은행 부행장에, 남원 출신인 소성모 전 농협은행전북본부장이 농협은행 부행장에 임명됐다.

김창수 농협경제제주 상무와 박태

석 농협은행 상무는 올해말 물러나게 된다.

/안재용 기자

LX공사, 도로시설물 관리 드론 활용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드론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국내 도로관리 및 국도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 활용사례 조사 및 방향 수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방안 마련, 시범사업 수행을 통한 및 상세 매뉴얼 작성, 관련 규정 및 제도 검토 등이 이뤄진다.

연구원은 특히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도로 비탈면 조사 및 도로사면 유실 측정, 지장물 및 점용현황 조사, 교량점검, 도로포장 상태, 차선 노후화 등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조사 등 정시영상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연구원 이재강 책임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효율적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의 건설, 운영, 유지관리 분야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해상교량 건설현장 '인기'

익산국토청, 올해 건축 프로그램에 1000여명 참여

호남지역 해상교량 건설현장이 토목학과 대학생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해상교량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개 단체, 970여명이 참여했다.

토목 전공 대학생들이 12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와 토목학회 소속 전문가들도 해상교량 건설 현장을 찾았다.

국내에서 시공중인 해상교량 현장 가운데 최대규모로 꼽히는 신안 압해-압태(새천년대교) 건설현장이 9차례로 가장 많았고,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화양-적금 건설 현장이 4차례로 뒤를 이었다.

군산과 서천을 연결하는 군장대교와 신지-고곡(완도), 지도-임지(무안, 신안) 현장도 2차례씩 견학이 이뤄졌다.

이처럼 해상교량 건설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해상교량 건설 기

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해상교량 건설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점도 견학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이와 함께 다양한 토목기술이 적용되는 해상교량 건설현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방문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익산국토청의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현장견학에 참여한 사람들 중 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인 674명)이 견학에 대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 설문 참여자의 85%(인 637명)이 현장견학을 통해 해상교량 건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으며, 77%(인 571명)은 다른 사람에게도 견학을 권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은 10일 도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신입행원과 함께하는 2016 특별한 크리스마스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銀 '신입행원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나눔' 봉사

도내 소외계층에 선물 전달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신입행원과 함께하는 2016 특별한 크리스마스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참가자들이 산타복을 입고 1일 산타가 돼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선물을 직접 포장하고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은행 신입행원 및 임직원 30여명은 도내 200여명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포장했고,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했다.

전북은행 신입행원들은 "아동들을 직접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나

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동기들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은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임직원 급여 1% 성금을 통해 아동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비를 마련했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안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真心
홍삼주